

사람들은 어류 동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'물고기'라고 부른다. 그런데 이 '물고기'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좀 불평등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'물고기'는 '물'과 '고기' 즉, "식용하는 온갖 동물의 살"이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. 독립적인 존재인 어류를 인간에게 잡아먹혀야만 한다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옳지 않다. 다른 사람에게 그저 살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물권 활동가들과 비건들은 '물고기'라는 말 대신 '물살이'라고 부른다.

다른 사람에게 살덩어리라고 표현한다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'사람과 물고기가 같나?'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곤 한다. 이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깔려져 있다. 하지만 인간도 동물이다. 인간과 동물은 둘 다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. 이렇게 같은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동물을 낮은 존재로 생각하며 동물을 차별하고, 학대하고, 착취한다. 이것을 종 차별주의라고 한다. 종 차별은 생활에도 밀접해졌다. 돼지, 소, 오리를 사육하고 도살하여 먹는 것도 포함된다.

동물해방물결의 커뮤니티 '종 평등한 언어생활'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8월 25일 종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**2021동물권 행진 : 물고기 아니고 물살이**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. 아직은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'물고기' 대신 '물살이' 표현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자. 물고기 아니고 물살이 캠페인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진행된다. 검색창에 '빠띠 캠페인즈' 라고 치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으며, 여기서 '물고기'를 검색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. 물살이 관련 이미지에 '물고기 아니고 물살이' 슬로건을 입혀 인증샷을 올리면 된다.

이 캠페인에 참여해 물살이라는 대항 표현을 알아보자.